



“모든것엔 끝이 있어요”

17 선지식·관후 스님

“조금 부족한 것이 편해요”

9 도반의 향기·연기자 김혜옥

“참사람 결사 정신 잊겠습니다”

6 백양사 주지 시몽 스님

“시쓰는 자체가 禪”

19 대담·이승훈 시인

수행자에게 ‘황혼’은 없다

조계종 종회특위, ‘승려노후복지법’ 제정안 마련

“문중 없고 사제 없고, 돈 없는 스님들은 노후가 걱정이다.”
노후보장제도가 미비한 승가에 노스님들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세달 66세 이상 스님들의 안정적인 수행 및 포교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안인 윤곽을 드러냈다.

조계종 중앙종회 승려노후복지를 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 동광) 실무소위원회는 위원장 선문 스님 주재로 제2차 회의를 열고 (가칭) ‘승려노후복지법 제정안’ 초안을 확정했다. 실무소위는 10월 초 승려노후복지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열어 이 종합안을 결정한 뒤, 총무원 집행부에 종합안을 보내 예산부문에 대한 의견을 추가로 반영할 예정이다. 또 10월 말 승려노후복지법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어 11월 종회 본회의에 상정할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승려노후복지법’, 무엇이 담기나=제정안에는 ‘승려복지재단’을 설립해 스님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는 66세 이상의 스님에게 수행연금 지급, 보건 및 의료 보장, 주거 및 수행 보장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금의 설치 및 조성, 관리·운영에 나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종합안에 따르면, 종단과 교구 본발사는 노스님들의 보건과 복리증진을 위해 종책을 마련하고 승려노후 주거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또 종단은 2년마다 승려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승려노후복지사업을 실시하는 교구 또는 사찰에 대해 분담금 감면, 포상, 인사 우대 등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승려복지재단은 승려의 노후 건강을 보장하고 수행과 포교에 전력하도록 수행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노스님의 질병, 부상 등에 대해서는 의료급여(의료비, 요양비, 간병인 등 지원)를 지급하도록 했다. 대신 모든 스님들은 국가의 공적 보험제도인 국민연금제도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비용은 재단이 부담하도록 했다.

◇ 복지재원 확보가 관건=“본종은 승려의 노후생활 보장과 건강유지를 위해 승려 노후복지원을 설치한다”고 규정된 조계종 중헌(제116조)이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한 것을 볼 때 역시, 재원 마련이 승려 노후복지의 관건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전 종단적인 공감대를 얻어 승려복지기금을 종단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종합안이 필수적이다.

이반 종합안은 총무원 및 교구 본발사 출연금, 재단 잉여금, 기부금 및 회수금, 기금 운영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승려복지기금’의 재원을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실무소위 박재현 위원(위원장 주무실장)은 “종단이 교구와 함께 일정한 기금으로 출연함으로써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한편, 아름다운재단의 1% 나눔운동과 같이 종단차원에서 사후재산 기증, 월정액 보시, 보험금의 일정한 보시 등 ‘승보공양 모금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문중·돈 없는 스님들은 노후가 걱정=7년 전 조계종 소속 모 사찰의 젊은 스님이 거동이 불편한 91세의 노스님을 서울 시내 한 동사무소에 맡기고 사라진 사건은 스님 노후 대책의 시급함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였다. 그러나 7년이 지난 지금도 무료양로원에는 오갈 데 없는 노스님들이 일 반 노인을 틀에 끼어 서글프게 생의 마감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평생을 수행에 전념하며 뜻깊은 길을 걸어

왔지만, 말년에는 의학할 곳이 마땅치 않은 스님들이 의외로 많다. 건강이라도 좋으면 인연따라 소위 ‘뒷방’이라든 거처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몸이 아파도 선뜻 아프다는 말조차 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스님 노후복지의 현주소다.

2007년도 기준, 조계종 승려는 1만 3576명으로 66세 이상 승려는 남승려 736명, 여승려 881명, 총 1617명으로 전체 승려의 11.9%를 차지한다. 문예이취까지 않으면서 삼보정재의 사유화와 종단 분규 등 수행풍토의 악화를 막을 방안이 없는 것이다.

종회의원 선문 스님은 “승려노후복지법 제정안’이 11월 종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총무원장 선거가 있는 내년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면서, 종합 제정안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향이 확대되어 삼보정재가 수행과 교육·포교·사회사업 등 종단 목적사업으로 회향되지 못하고 개인 노후대책 자금으로 유출되고 있다.”

스님 노후복지 대책의 시급함을 지적한 이 글을 지난 2001년, 조계종 중앙종회에 제출된 <승려 노후복지 문제에 대한 연구보고서>의 한 대목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스님 전용병원의 설립, 노스님 수행원 건립, 의료 보장 및 노후 연금 지급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삼보정재의 사유화와 종단 분규 등 수행풍토의 악화를 막을 방안이 없는 것이다.

종회의원 선문 스님은 “승려노후복지법 제정안’이 11월 종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총무원장 선거가 있는 내년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면서, 종합 제정안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북한 동포 굶고 있어요 47개 종교(불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인 모인인 ‘한반도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모임’은 9월 18일 서울 명동에서 북한 동포의 굶주림을 알리고 이를 돕기 위한 ‘한반도 화해와 평화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펼쳤다. 현재 서명자가 9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날 행사에는 탤런트 한지민, 김여진, 작가 노희경씨가 참가해 굶주리고 있는 북한동포의 비극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서명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박재원 기자

제1회 이상시문학상 시상식 안내

수상자 이승훈 시인(한양대 명예교수) 장소 한국불교역사 문화기념관 지하2층 일시 2008년 9월 23일 6시

社 告

■ 종교편향 근절 호법캠페인

“공공기관에 현대불교를 보냅시다”

본사에서는 국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기관, 특수법인, 각종 학교 등 공공기관에 현대불교 보내기 캠페인을 벌입니다. 한 장의 ‘호법보살’인 현대불교는 불교문화를 제대로 알리는 포교기능과 종교편향 및 해탈 행위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해 불교를 외치고 불평을 널리 전하는 최일선의 포교사가 될 것입니다.

- 법보시 대상**
청와대 각부서/국회의원실/정부(15부 2처)/경찰청/지방자치단체/각급 교육기관/전국 공공도서관/군부대
- 법보시 후원 안내**
문의 대표 02)2004-8200
-법보시는 1구좌 1,000원 이상 -계좌 : 국민은행 038-25-0008-365(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1차 법보시 청와대 주요 부서에 발송>
독자께서 보내주시는 법보시 후원금에 따라 청와대 대통령실장 제1·2부속실, 대변인실, 정무수석실, 민정수석실, 외교안보수석실, 경제수석실, 국정기획수석실, 사회정책수석실, 교육과학문화수석실, 홍보기획관실에 본지 698호부터 1차로 발송합니다. 그 다음주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 주요부서에 현대불교를 보낼 예정입니다.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 설치

문화부, 12인 ‘공직자종교차별심의위원회’도 구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제4조)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무원에 직무상 종교차별 행위를 신고받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를 설치해 10월 1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와 관련하여 차별행위를 하거나 관공적으로 특혜 또는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전화(02-720-1994)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cst.go.kr) 국민마당의 ‘공직

자종교차별신고센터’로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를 접수한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는 접수된 사례를 ‘공직자종교차별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이 사례가 공무원의 직무상 종교차별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심의, 해당된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에 통보해 처리하게 할 예정이다.

‘공직자종교차별심의위원회’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 종교계가 추천한 인사, 법조계 인사 등 12인으로 구성된다. 김성우 기자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법률사무소 서안
강명화 변호사 | 031)438-3054 010-7504-4521

www.buddhabook.co.kr 02_3672_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순 향산향 원액 100%”
청다향
부처님 제일공양 한국최초 식물과학 연구분석(동국대) 51가지 향기원명
덕유산 청다향 문의 055)941-1083

불가 최초생수에 희석하여 사용하는 관불·관음 전용 관불수향
올곧은 마음으로 참된 공양물만을 만드는
능인향당 향·조각·공양물
본사 02)3663-6777 직영매장(조계사 맞은편 02-730-6888)

전선(케이블)_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_대구 정지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_서울 회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LED인등 LED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천안 동심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빛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031) 792-6288, 794-4055 / 팩스: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연등·주름등·전선시공·영구위패·LED인등·LED전구